



Jaya Masiha! 예수님 찬양!

May 17, 2021

Vol. 32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절감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 코로나 현황...

네팔은 코로나가 갑자기 증가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2 차 유행하고 있으며, 4 월 29 일 부터 2 차 Lockdown 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 코로나 변종이 창궐하면서 인도 에서 일하는 네팔 근로자들이 귀국을 하면서 확진자도 함께 귀국하여, 매일 확진자가 9,000 명을 넘고 사망자도 200 명대에 이르고 확진율이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정점이 6 월말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후에 바로 3 차 유행도 시작될 것이라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projection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대사관마다 자국민을 위한 전세기를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Lockdown 기간엔 아침 7 시부터 두시간동안 필수 식료품 상점만 열고, 지역간 이동도 할 수 없고 수도권 카트만두를 아예 봉쇄했고 모든 모임이 중지되어서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주변에 사망자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빠서나 교회 사역자인 마야도 걸렸다가 다행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여 환자가 입원할 병상과 치료용 산소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속히 줄어들고,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며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며 Lockdown 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여호와 이레...

작년에 아내가 한국 정부 주관 “한국어 교원 자격증(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을 받기 위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9월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11월에 면접시험을 치르고 12월에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금년 2월말에 자격증을 받고 금년 4월 9일에 네팔에 입국했습니다. 전에는 네팔 교육대학에서 자격증없이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2019년 겨울 한국어 교원자격증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교수법을 비디오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보내며 필요한 과정을 마치고, 작년 9월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었고 때때로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도 하고 싶었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를 입국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최근에 국립대학이 된 Midwestern 대학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곳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싶은 소망이 생겨 기도중에 있었습니다. 작년 한국에 가기전에 한국어 센터 설립에 대한 제안서를 대학의 부총장을 만나 제출하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네팔에 돌아와 부총장을 만났더니 한국의 창원 대학교와 정식 MOU를 맺었고 내년 1월중에 특수교육학과를 운영하게 되어, 교과과정에 한국어를 넣어야 한다면서 저희에게 한국어를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하며 Lockdown이 풀리고 Council에서 승인이 되면 곧 강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팔의 주종족이며 상위 카스트인 브라만과 체뜨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어 센터가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 한국에서...

지난 편지에 기도부탁 드린 조카 보람이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가 자가 격리 중에 페이스톡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전에 이모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한후 얼마되지 않아 평안하게 자는 듯이 주님의 품으로.... 처갓집 큰어머님께서도 소천하셨고, 금년 1월은 장모님 1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과 추모식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믿음을

나누며 아직 믿지 않는 형님들과 처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머니 얼굴에 피부암이 발견되어 도와드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 미국에서...

세상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부모 된 자로서 자식들의 안위가 염려되어 네팔로 돌아오기 전에 미국에 사는 딸, 사위, 손자들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이 세계 확진자수 1위를 달리고 있을 때라 한국 가족들은 방문을 말렸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채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외롭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듬어 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나기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미국방문을 해야 할 지 많이 망설였으나 가장 적합한 때에 가게 하시고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너스 선물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운 중이었기에 모든 분들께 연락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앞날을 위해서...

✓ 하나님의 자비로...

어느덧 저희가 네팔에 들어 온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네팔로 돌아오기 전에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지난 10년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에...

“~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화살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화살 대가 굵어지지 않고 곧아야 하며 (선교사의 성품)

화살 축이 뾰족하고 단단해야 하며 (선교사의 은사)

화살 꼬리에 바람을 잘 탈수 있는 깃털(성령님과의 동행)
이 잘 붙어있어야 합니다.

지난 10 년은....

구부러지고 뭉툭한 나무통, 울퉁불퉁한 성질들을 쪼개고 쪼개어
반듯하고 가는 화살 대로 만드시고,
아무 능력도 없던 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때에 따라 은사를 부으시고,
자기 멋대로 살던 자들을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화살통에 준비된 화살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면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도록...

지난 10 년동안 신실하게 동역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동역자 여러분과 저희가 협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6-8)*

네팔 수르켓에서
최 동욱, 최 향숙 선교사 드림